편집후기

봄은 1년을 시작하는 계절.

나뭇 가지 끝의 초록빛 發芽를 보며 만물을 잠재우기도, 깨우기도 하는 대자연의 위대함에 내 존재의 작음이 零에 무한히 가까움을 재삼 깨닫는다.

13년의 각고 끝에 탄생시킨 방재시험소의 개소에 따른 특집구성관계로 본지 발간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제 날짜에 맞추려고 애쓴 보람으로 그런대로 4월을 넘기지 않아 다행스럽다.

바야흐로 봄은 봄이어서 春困은 눈꺼풀을 자꾸 짓누르는데 어느새 여름호를 준비할 때가 되었으니 역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

봄호 제작을 위해 옥고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도 감사를 드린다. 〈崔〉

한참은 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실감나더니 어느 새 옛말이 되고 말았다.

여의도 거리마다 봄빛이 화사하고 윤중제엔 벚꽃이 만발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개소 테이프를 끊게 된 방재시험소를 특집으로 다루느라 「방재와 보험」 봄호 발간이 늦어졌다. 이 점 독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꽃샘바람 속에 문을 열고 본격업무에 들어간 본협회 부설 방재시험소가 우리 사회에 고도의 방재기술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빌어보자. 〈鄭〉

무사분주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봄이라서일까?

하루해가 그렇게 짧고 까닭없는 초조감이 요즘처럼 간단없이 밀려드는 때도 또한 별로 없던 것 같다.

지난 1년의 피로함을 보람으로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되는 봄호는 우리에게 부푼 희망과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기대되는 호이기도 하다. 〈泰〉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화재현장 목격담
○시, 수필, 수기, 꽁트 등 문예작품

□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통권 제29호〉

1986 / 봄 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마-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6년 4월 1일
인쇄 / 1986년 3월 31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 행 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